



무라카미
다카시 작
'Flower ball'

수준 높은 작품도 감상하고, 소장도 하고.

미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트렌드와 맞물려 아트페어

는 작품을 구입하거나 다양한 작품

을 감상할 수 있는 미술축제의 장이다. 예술인들은 교류와 창작의 기회를, 시민들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올해도 광주의 예술 브랜드 가운데 하나인 '아트:광주' (이하 아트광주)가 시민들을 찾아온다.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이 주관하는 이번 아트광주는 올해부터 '광주국제아트페어'로 명칭을 변경했다. 호남 최대의 미술시장인 아트광주가 점차 외연을 확대해 아시아 중심 아트페어로 부상하기를 바라는 희원을 담고 있다.

특히 본 행사에 앞서 시립미술관을 비롯해 하정웅미술관, 국윤미술관, 소암미술관, 은암미술관, 이강하미술관 등 지역 미술관과 갤러리 6곳이 함께하는 사전 프로그램 '광주미술주간'이 펼쳐진다. (스탬프 투어에 참가해 스탬프를 완성하면 아트상품이 주어진다.)

노희용 대표는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아트페어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문화재단에서 주관하고 있다"며 "광주문화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행사 가운데 하나인 아트광주를 통해 미술 애호가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올해 본 행사는 11개국 99개 갤러리, 특별전 6개 등 모두 111개 부스가 운영된다. 600여 명의 작가 4000여 점의 작품이

감상하다 소장까지

‘광주국제아트페어’ 23~26일 DJ센터

11개국 111개 부스…작가 600여명 참여

달력 제작 체험·도슨트와 전시장 투어도

관객들을 맞는다. 광주 지역 갤러리도 45곳이 참여한다.

선화랑을 비롯해 아트웍스파리서울, 갤러리 그림슨, 키다리 갤러리 등 국내 대표적인 갤러리와 일본, 프랑스, 싱가포르, 미국, 독일 등 해외 11개 갤러리들이 작품을 출품했다.

무엇보다 국내의 거장은 물론 전시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공동화랑은 오지호, 양수아, 천경자 등 호남 근현대 미술사에 빛나는 거장들의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일본 SEIYA FINE ART 갤러리가 무라카미 다카시와 와카루 작품을 선보이며, 스페인의 Chaiter Art Gallery는 '콜롬비아의 피카소'로 지칭되는 두반 로페즈의 그림도 등장한다.

올해는 3개의 의미 있는 특별전이 마련된다. '거장의 숨결'展, '프로포즈'展, '라이징 스타'展이 그것.

여수가 낳은 거장 손상기(1949~1988)의 작품이 광주에서 처음 선보인다는 데 이목을 끈다. 손 작가는 불우한 삶을 살았지만 불꽃같은 예술혼을 피웠던 천재화가다. 어린 시절 사고로 인한 척추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이면서 올림이 있는 작품 세계를 구현했던 손 작가의 서사는 언제 들어도 감동적이다. 한국 미술사에서 그가 점하는 조형언어의 위치와 의미를 다각도로 사유해볼 수 있다.

'프로포즈'展은 지역 컬렉터들이 소장한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는 자리다. 강용운, 무라카미 다카시, 쿠사마 야요이 등 국내외

작가 23인의 그림은 예술작품이 갖는 소장의 의미를 아우른다.

지역 청년작가들의 미술 시장 진입을 견인하기 위해 기획된 '라이징 스타'展은 현재와 미래에 방점이 놓여 있다. 공모를 통해 뽑힌 손지원, 정송희, 권예슬 3명 작가 특유의 짧은 감각과 재기 발랄함이 투영된 작품을 보는 즐거움도 기대된다.

달력 제작 등 체험프로그램, 도슨트와 함께하는 전시장 투어(아트광주 홈페이지 참조)도 마련돼 있다.

아트광주 입장권은 오는 22일까지 온라인 예매처 통해 사전 예매(20% 할인) 가능하며 행사 기간에는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천경자 작 '개구리'



곽훈 작 '할라잇'

art:kwangju : 아트광주

제16회 광주국제아트페어

2025 Kwangju International Art Fair



홍콩필하모닉오케스트라.©Desmond Chan_HK Phil

선우예권과 홍콩필의 만남…차이콥스키 환상의 선율

광주예술의전당 24주년 기념 18일 특별기획공연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은 2017년 반 클라이번 국제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금메달을 거머쥐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베를린 필하모니, 뉴욕 카네기홀, 런던 위그모어홀 등 세계 주요 공연장에서 연주를 이어오며 깊이 있는 해석과 진정성 있는 연주

로 국제무대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선우예권이 세계 정상급 음악가들과 함께 광주 무대를 찾는다.

광주예술의전당 개관 24주년을 기념하는 특별기획공연 '홍콩필하모닉오케스트라 with 리오 쿠오크만 & 선우예권'이 오는 18일 오후 4시 대극장에서 열린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홍콩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마카오 출신 지휘자 리오 쿠오크만, 그리고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함께하는 무대다. 광주예술의전당, 광주MBC가 공동 주최·주관.

프로그램은 진은숙의 '수비토 콘 포르자'를 시작으로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1번과 교향곡 제5번이 이어진다. 현대음악의 긴장감과 낭만주의

의 서정이 한 무대에서 만나는 이번 공연은, 홍콩필 특유의 깊고 세련된 사운드로 가을 오후의 무대를 풍성하게 물들일 예정이다.

홍콩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매년 150회가 넘는 연주회를 통해 2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만나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정상급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했다. 2019년에는 영국 클래식 음악지 그라모폰이 수여하는 '올해의 오케스트라상'을 아시아 단체로서는 최초로 수상했다. 세계 주요 무대에서 동양적 감성과 서구적 해석을 조화롭게 녹여낸 연주도 호평을 받아왔다.

지휘를 맡은 리오 쿠오크만은 홍콩필하모닉 상주지휘자이자 마카오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을 역임한 지휘자로, 빈 심포니·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NHK 교향악단 등과 협업하며 국제적 명성을 쌓았다. 2022년 홍콩예술발전상 '올해의 아티스트(음악 부문)'에 선정되며 아시아 지휘계의 주목받는 인물로 떠올랐다.

전당 모성일 홍보팀장은 "이번 공연은 광주예술의전당 개관 24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특별한 무대로, 홍콩필하모닉의 깊은 울림과 선우예권의 섬세한 연주가 어우러지는 완성도 높은 무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선우예권 ©rohsh

삶·예술·철학… ‘광주시립미술관 명사초청 특강’ 11월까지 4차례

깊어가는 가을밤 강연으로 만나는 문화선물.

삶과 예술, 철학 등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인문학 강연이 시민들을 찾아온다.

‘광주시립미술관 명사초청 특강’이 10월~11월(오후 7시) 모두 4차례 진행된다. 이번 특강은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윤익)과 (사)광주미술관회(회장 김영희)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각 강자 선착순 200명(무료) 가능하다.

먼저 오는 16일은 미술평론가 조원재 씨가 '삶은 예술로 빛난다: 어떻게 우리의 삶은 예술이 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조 씨는 팻케스트 '방구석 미술관'을 기획·진행하고 있다.

이어 29일에는 이창용 도슨트가 '빛을 그린 화가들 에두아르

마네&클로드 모네'를 모티브로 이야기를 나눈다. 이 도슨트는 루브르를 비롯해 오르세, 바티칸 등 세계적 미술관 도슨트 경험을 강연에 녹여낼 예정이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철학을 주제로 한 강연도 있다. 오는 11월 5일은 김 현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HK 교수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삶을 통한 철학'을 알기 쉽게 풀어낼 예정이며, 김 교수는 '자아나는 클래스', '최강 1교시' 등 방방송 프로그램

을 통해 대중들을 만나왔다. 마지막 강자는 11월 19일에는 홍성욱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가 '과학기술과 예술의 접점을 찾아서'가 펼쳐진다. 홍 교수는 과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문학과 연계한 저술과 강연을 해오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소란이 새어들지 않는 곳에서 명상음악회

18일 화순 '만연사 명상음악회'

장필순·비로자나합창단 등 출연

화순 만연사(주지: 행선)에서 산사음악회가 열린다. 오는 18일 오후 6시.

이번 음악회의 타이틀은 만연사 명상음악회 '소란이 새어들지 않는 곳'(연출 송기억)으로 산사음악회 본래의 취지를 살려 관객들이 소란한 세상을 벗어나 잠시나마 명상의 시간을 통해 마음자리를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기획됐다.

만연사는 당대의 명창인 임방울, 이동백, 이남치, 정광수 등이 소리를 익히고 가르치던 곳으로, 지속적으로 산사음악회를 열어 소리공양으로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다.

'아끼는 마음'의 저자 박화진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명상음악회에서 박화진은 '명상시 낭독'을 선보일 예정이다. 초대가수는 서정적이고 독창적인 음색을 지닌 뮤지션으로 꾸렸다. 장필순을 비롯해, 정밀아 정민아 조성일 비로자나합창단이 함께한다.

장필순은 한국 대중가요 100대 명반에 두 장의 음반으로 이름을 올린 대표적인 포크 가수로, 첫 솔로 앨범 수록곡 '어느새'를 비롯해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등 솔한 명곡을 발표하며 인기를 끌었다. 또한 그녀의 제주 생활이 여러 매체에 소개되며 힐링, 치유, 슬로 라이프의 대명사가 된 바 있다.

모던 가요그룹 정민아는 가요계 연주자이자 싱어송라이터이다. '가야그림'라는 신조어를 만든 장본인으로, 4장의 정규 음반(상사몽, 잔상, 오아시스, 사람의 순간)을 발표했다. 남다른 가창력의 소유자인 조성일은 음악그룹 '꽃다지'에서 14년간 중심 보컬로 다양한 공연 및 창작 활동을 했다. 2012년 제주도에 정착하며 솔로 음악활동을 시작했다.

한편 2005년 범능스님을 모시고 창단된 만연사



장필순

조성일

소속 비로자나합창단은 그동안 지역 불교행사와 산사음악회에서 활동했고 부처님의 향기를 품은 합창단을 지향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임재필 지휘자를 중심으로 27명의 합창단원이 이번 아름다운 음성공양을 준비했다.

본 공연에 앞서 오후 5시부터 사전공연을 선보이며 화순에서 활동하는 '향구네풍물'과 '지오윈드양상발'이 함께한다.

이에 앞서 만연사 명상음악회는 공연 외에도 당일 오전 11시부터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국내 2호 중국자 연구자인 김혜숙 박사에게 차를 배우고 맛보는 '김혜숙과 함께하는 만연다회', 25년 전통을 이어온 '수려재' 바느질공방 회원들이 꾸미는 보자기 전시 '세요각시 자투리전', 그리고 매듭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플리마켓 등이 예정돼 있다.

연출을 맡은 기역책방 송기억 대표는 "전통과 산사의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만연사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며 "깊어가는 가을 사찰에 들러 힐링과 위안의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예술과 기술, 기업의 혁신을 디자인하다’

지맵, 오늘 디지털아트 컬처랩 포럼

지난 2014년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에 가입한 광주는 미디어아트를 매개로 창의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창의도시는 현재 24개국 25개 도시가 지정돼 있으며 각 도시들은 역사성 등을 매개로 도시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센터장 강하경, 지맵)은 미디어아트를 모티브로 한 '디지털아트 컬처랩'을 현재 운영 중이다. 지맵은 그 일환으로 15일 오후 3시 1층 미디어라운지에서 포럼을 연다.

‘예술과 기술, 기업의 혁신을 디자인하다’를 주



허대찬

김태운

제로 펼쳐지는 이번 포럼에는 앨리스온 편집장 허대찬 모더레이터, 김태운 현대자동차 그룹의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제로원의 책임매니저가 참여한다.

섹션1에서는 김태운 책임매니저가 '예술과 기술, 기업과 만나다'를 주제로 강연 및 이야기를 나눈다. 섹션2에서는 허대찬 모더레이터와의 대담 및 질의 응답이 이어진다.

/박성천 기자 skypark@